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a nmaum

나는 속 빠진채 놓고 지켜보는게 '관'

생활하면서 정진하는 법

문 정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전에 스님께서 저녁때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자야 된다고 하셨습니. 그러면 우리가 한 시간을 제대로 살면 하루를 제대로 살게 되는 거겠지요. 자기 전에 반성하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 때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정진이 되는 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 그냥 생활선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냥 내 주인이 그렇게 시키

려면 인정을 못해요. 하늘에서 한을 중심에서 인정을 못한다 말입니다. 열쇠를 받지 못해요. 그걸 해인(海印)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다시한번 말합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통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과의 습성, 인연들하고 살던 습성에 의해 나오면 한번 굴러서 놓되, 그 마음이 분개해서 탁 나오더라도 안으로 상대방을 생각해야 이겨요.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나 내 생각으로서 나의 기준으로서 잣대를 펴려고 하지 말고, 한번 내가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돼 봐야 이겨요. 그러면 그런 습성

나를 발견하기 위해 조용히 앉아 '내가 있다는 증거를 해보라'고 관하는게 바로 들어가는 관법

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주인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게 참선입니다. 그냥 그대로 참선이예요.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나를 발견 못했으면 진짜 공부를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저녁이면 조용한 틈을 타서 한 30분이라도 앉아서 '내가 너 있다는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을 해주느냐?'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해 주느냐?' 하고 관하세요. 그것이 특바로 직속 들어가는 관법이거든요. 물론 좌선도 되지만 그게 관법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리죠. 그리고 살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특히 더하죠. 우리가 이 도리를 발견하려면 첫째, 다섯 가지 요소가 다 거기서 나오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또 관습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본래 살던 습성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데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나오는데로 말하고 나오는데로 하거든요. 그걸 한번 굴러지 못하니까 습성이 떨어지지 못하고 그

이 차차 없어지죠. 그리고 등글어지고 볼로 보지 않게 되고 빨리 그 몸통 안에서 벗어날 수 있죠. 몸통을 종이이라고 그냥 하죠.

일감 적을땐 점심 굶으며...

문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디보면 어떤 땐 일감이 적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안먹고 '저 일감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할부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깐 너희들이 나가서 더 벌어들어 오든지 일을 더 많이 하든지 하라' 그러구선 어떤 땐 굶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공부와 관해서 내면과의 대화가 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 만약에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점심을 먹게 하는 것도 너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그게 배우는 과정에서 특별한 맛이 나는 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했으면 굶으라는 거로구나 하고 굶고, 또 먹게 되면 먹게 했구나 하고 감사하게 먹고, 하디보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안되고 되고 되고 안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그냥 막 돌아가버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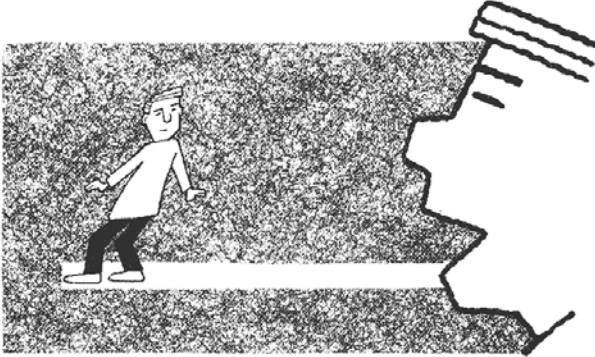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요, 그렇게 한참 돌아가야 뭐가 되는 거니까 부지런히 관해 보세요.

하여튼 모든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지극히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고기들이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인간도 공기중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자재를 자주 도난 당해요

문 자성본래품에 귀의합니다. 평소 현대불교 지사를 통하여 큰스님께서 불자들에게 자상히 일러 주시는 생활의 지혜 법문을 매우 접할 때마다 크나큰 위안과 감사를 느끼고 또 느낍니다.

살던 습성 떨어지지 않으면 열쇠 못받아 일념으로 관하면 자면서도 깨어 있게 돼

죽어도 거기, 살아도 거기, 모습만 달리 해서 나오고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내 몸통 안에서 살아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더 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대로 그냥'네'를 알아서 해, 난 너 심부름이나 할 거야 그냥 '확' 하하하...

인간의 몸통이는 전부 고깃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주인한테다 삼배 올리고 정리하시고 그러세요.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행정 책임자로 있으면서 학교 내 중요기자재가 자주 도난당하여 책임 차원에서 고뇌스럽습니다(법인은 출입하는 학생으로 추정됩니다만 확증이 없음).

무슨 인연의 도리인지 전생의 업연으로 생각되면서 고민스럽습니다. 도난당하게 한 것도 거기, 다시 그 자리에서 그 몸통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그 자리라고 주인공에 맡겨놓는 것이지요? 풀이 합니다만 해결이 안 되어 고충입니다.

문 원컨대 이 문제 해결의 가르침을 청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 편지를 보셨으면 답장이 올랐습니다.

다만 왜 빨리 안 올까 하고 조바심을 내서는 안되지요.

구구절절 간곡한 사연을 적어 보내셨다면 될 걱정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의 밑음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한치도 예누리가 없는 공부입니다. 그러니 굳게 믿고 또 믿어보세요.

부모님 생사 · 이름 모릅니다

문 저는 워싱턴 지역의 이광훈입니다.

해당스님의 보살핌으로 지원 신도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해두스님께서도 어린이 법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내 부모 네 형제가 따로 없이 모두가 하나인데 때가 되면 자기네 조상님들을 위해 불을 밝혀 드립니다. 저의 부모님의 생사도,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르는 저의 조상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혹시 저의 친부모님께서 불자시라면... 하는 마음에 이름을 씁니다(이광훈: 63년생 출산 후 바로 그 당시 서을 수경사에 계시던 육군 헌병 대령집으로 입양

됨).

답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해골무덤을 보시고 절을 하셨다는 얘기를 아실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때든 내 부모 내 조상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나 내 부모 네 부모가 풀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셨죠.

조상님들의 얼굴도 모르고 어떤 분이셨는지를 모른다고도 부모님이 계셨으니 까 지금 내가 확실하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남을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

다. 조상님과 마음으로 감응이 되고 통신이 될테니까요.

'관' 공부와 활구참선 다른점

문 스님의 '법공양 페이지'를 열심히 읽으며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해태심이 날때마다 많은 에너지가 되는 스님의 가르침 참으로 감사합니다.

현대 스님의 그 '놓고 관하세요'라는 그 말씀을 접할때마다 강하게 일어나는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감히 편을 들었습니다.

'놓고 관하는 법'과 '간화선' 즉, 의식참구법(활구참선)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요?

스님의 '관하세요'라는 말씀을 소위 '관법'으로 해석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그 관하는 것도 많이 훈련되고 익어졌을땐 '몽중일여' 즉, 짐을 지면서도 가는 한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답 어떤분들은 이뤄꼬나 무자 화두를 따로 들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화두이고, 이 몸통이 이렇게 움직거리니까 바로 화두라고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죠. 행주좌와 일체수 일투족을 지켜봐라. 숨 쉬는 걸 지켜보고 발걸음 떼어놓는 걸 지켜보고 말하 는 걸 지켜보고... 그렇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지켜봐라. 그래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말입니다.

본래는 하나도 고정된게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해야 하고 어디 있다고 해야 하는가? 그걸 알려면 '내가 나로 소이다' 해가지고는 영원히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속 빠지려, 놓고 지켜보아라. 그래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게 관하는 겁니다. 이름이야 뭐라하든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일념으로 가다보면 짐을 자면서도 깨어 있게 됩니다.

말렸으면 간섭 않아야 되는지요

문 저의 아버지는 진소리가 좀 심하신 분입니다. 제가 무슨일을 하려 해도 중간에서 자주 일일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짜증난 나고 될일도 안된다고 느껴집니다.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해서 의욕을 꺾고 사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까...

하고 불만을 가져왔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러는건 아닐까? 내 주인공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자연스레 맡기지 못하고 쓸데 없이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통찰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여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중재광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자 중후스님

"불씨 하나가 광야를 태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양심적으로 일함으로써

불교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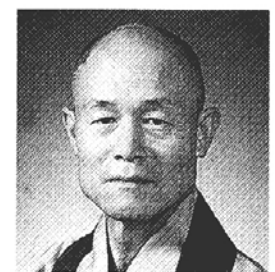
강물이 바다를 만나면

저절로 그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작은 내 마음

바다에 점 찍었습니다

- 선교 양종의 수행풍토 정립
- 불교계의 사회 복지 활동의 활성화
- 육화합 정신에 입각한 선별적 사면 복권



기호 7번

중후 스님 이력

- 독도 월산 큰스님 은사, 석암 큰스님 계사
- 경력 노력자 주지
-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수석 부회장
- 불국사강원 총동문회 회장
- 대한불교 사찰사암연합회 회장
- 고양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영등포교도소 불교교화위원회 수석 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